

사업회 소식

사업회 연구소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선임



사업회는 지난달 1일(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부원장인 정근식 교수(51세)를 사업회 연구소장에 임명했다.

정근식 교수는 역사사회학, 사회운동론을 전공했으며 '민주, 인권, 역사와 기억' 등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연구를 통해 그동안 5·18민중항쟁, 민간인 학살, 인권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발간



국내 고문피해자의 심리치료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회에서 발간한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페터 엘사스 지음, 최현정 옮김,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부터 실질적인 심리치료적 지원 방향 제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전문 도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번역 발간된 『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는 고문피해자의 심리치료에 대한 기본서인 동시에 전문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저자인 페터 엘사스는 University of Copenhagen의 심리학 교수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Copenhagen의 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Survivors(RCT) 치료자들의 지도감독을 담당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문과 폭력에 관한 철학적 논의, 치료자들의 태도와 윤리를 점검하는데서 시작한다. 이어 고문 후유증에 관하여 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치료 상황에서 피해자와 치료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에서부터 특수한 후유증과 관련된 전문적 치료 방안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비서구 문화권에서 고문 피해자 치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지도감독,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문의 : 기념사업팀(02-3709-7612, roundH@kdemo.or.kr)

『아시아 민주주의 현장에 가다』 발간



국제사업팀은 지난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진행했던 '아시아 민주주의 교류단' 활동의 결과물을 엮은 보고서 『아시아 민주주의 현장에 가다』를 펴냈다. 2008년 5월 노동절과 『A Single Spark(전태일 평전)』의 인도네시아어판 출판기념식을 맞아 방문했던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개발과 환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6월 몽골 총선의 현장, 고속 개발과 그로인한 강제이주 문제가 화두였던 7월 캄보디아 총선 현장 등 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각국의 정치문화와 시민사

회를 들여다보고 특히 선거를 둘러싸고 무엇이 핵심 이슈이고 이를 어떻게 풀어 가는 지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과 캄보디아 교류단은 외부 참가자들을 모집해 진행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들이 다문화 시대에 아시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류단 파견 시 전문학자(인도네시아-송승원/한국동남아학회, 몽골-정영태/인하대 정외과, 캄보디아-정연식/창원대 국제관계학부)가 함께 하여 심도 있는 이해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교류단 사업을 총괄 진행하였던 '아시아 브릿지'의 나효우(전 국제사업단 전문위원) 운영위원장이 각 전문학자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사료관, 전문인턴 채용

사료관은 사료평가와 연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전문인턴 5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최근 경기악화와 고용부진의 지속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석사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채용에는 역사학, 정치외교학, 문헌정보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이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료관에서 기록물 평가와 연구, 데이터 이전과 개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사료관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회 소식

‘1970년대 노동운동 구술기획위원회’ 개최



사료관은 지난달 17일(화) 10시 ‘1970년대 노동운동 구술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중덕 전태일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김준 성공회대 전 연구교수 등이 참석해 1970년대 노동운동 구술자료 수집방향과 구술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료관은 구술사업계획 수립 시 ‘구술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관은 중장기 과제로 1970년대 민주화운동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쳐 ‘1970년대 학생운동구술’을 수집해 정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는 1970년대 민주노조 건설 등 노동운동 태동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수집방향을 두고 구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 1기 대학생 자원활동가 상반기 교육 수료식·발대식 개최



교육팀은 지난달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서울 도봉숲속 마을에서 ‘제 1기 대학생 자원활동가 상반기 수련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4회 30시간 동안 상반기 교육(민주주의, 리더십, 소통과 자치, 실천 역량)을 수료한 대학생 20명은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 앞서 가신 분들의 정신과 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14일 저녁에 진행된 임명장 수여와 발대식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들끼리 서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동기 등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열린 두 차례 팀 빌딩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민주야 영원히 날자’라는 뜻인 ‘민주나라’를 자원봉사단 명칭으로 정하고, ‘느끼자, 사랑해! 생각하자, 사회를! 즐기자, 민주주의를!’이란 슬로건도 만들었다. 또한 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율, 평가, 약속, 향후 일정 등 많은 의제를 논의했고 이는 향후 매뉴얼로 만들어 질 계획이다.

상반기 수련회 이후,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10개월 동안 활동가들이 신청한 분야에서 활동 하게 된다.

2009년 현대사 교사연수 참가자 모집

교육팀에서는 전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2009 현대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달 25일(토)~26일(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교사 스스로 현대사 교양을 갖추고 생생한 현대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현대사 교사 연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여수 등 지방에서도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450여명의 초·중등 교사가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현대사 교사연수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했던 과정과 수업에 쓰였던 교안 소개 등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돼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 현대사 강의를 통해 구수한 입담을 자랑해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현대사 유적지를 답사하는 시간도 흥미롭다.

‘현대사 교사 연수’와 더불어 7월 29, 30일에는 ‘민주시민교육 교사직무연수’도 진행된다.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는 대화와 토론, 타협, 인권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업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다.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전문성향상과정(교과지도) 직무연수 1학점이 부여된다. 참가 신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cracy.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교육사업팀 최지윤(02-3709-7624, 3design@kdemo.or.kr)

2009년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실무자 워크숍 개최



전국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 실무자 워크숍이 지난달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민주공원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회를 비롯하여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전국 10여개 단체에서 실무자 25명이 참석하였다. 실무자 워크숍은 각 단체의 2009년도 사업계획, 부마항쟁 30년, 4월혁명 50년, 5·18민주항쟁 30년 사업의 주요 내용과 경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각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사이의 교류를 증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준비되었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요산문학관, 4·19혁명 신정웅 열사 추모비 등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UN기념공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서, 향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